

“윤 대통령은 자진 하야하라”

익산시의회, “헌법 유린·민주주의 파괴한 비상계엄 선포 강력 규탄”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익산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직 야당을 탄압하고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를 비호하는 정권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불통 ‘나홀로 국정’을 고집하지 않았나 자문자답해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익산시의회는 “윤 대통령은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진 하야하라”고 촉구하며 “끝까지 정권유지를 위해 거부한다면 강력하게 탄핵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맞손’

익산교육지원청·원광대와 운영 협약... 인재 양성·교육환경 개선



익산시가 지역 교육 주체 간 협력을 통해 명품 교육 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익산시는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와 함께 5일 교육발전특구 민관협력 조직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핵심적인 운영 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교육 주체들의 협

력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익산교육지원청은 지역 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원광대학교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또한 각 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시

범지역 운영·관리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 △공교육 지원 확대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 등에도 적극 협력한다. 익산시는 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방과후학습관 운영 △특별강사제도 △교원 치유 힐링 프로그램 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교육은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라며 “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지역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중간조직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해 3년간 26개 사업에 총 229억 원(국 99, 도고 40, 도 27, 시 63)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네트워크 이중화·보안장비 고도화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정보통신망 선로를 이중화하여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프라 강화 조치이다. 이를 통해 국립군산대학교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장애 상황에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SOAR 솔루션은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을 자동화하여, 낮은

수준의 보안 이벤트는 사람의 개입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DDoS 방어 장비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부터 학교의 네트워크를 보호하여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준의 보안 이벤트를 사람의 개입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DDoS 방어 장비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부터 학교의 네트워크를 보호하여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군산시의회 환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환경봉 의원(사 선거구·나운1·2동)이 올 한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환경봉 의원은 (사)한국유권자 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정과 평가를 거쳐「제7회 정명대상」 2024 지방자치대상 의정대상' 대상을 받았다. 환경봉 의원은 제4~7대 의원을 역임한 다산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5분 자유발언 ‘어쩌다 이런 일이’ 시리즈로 군산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부지 이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갑차 예산 지원 등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태양광 발



전사업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비회기 중에도 시의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환경봉 의원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묵심있는 지역 일꾼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봉 의원은 지난 4월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부패 관행 근절과 청렴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뛰어난 지방정치 활동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지방의원 부문 행정·정치문화 혁신 분야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바선거구·수송동)이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인 정명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중앙회를 비롯해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이 검증하여 선정하는 의미있는 상이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군산시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와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화학사고 예방대책 마련, 상수도서관 건립,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신애 의원은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 발



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신애 의원은 9대 초선의원으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전국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상’

익산시가 장애인복지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시도에서 추천한 44개 시군구에 대해 장애인 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장애인 자립지원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단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및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을 추진 중으로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과 자립 지원을 위해 ‘익산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자립지원 주택마련과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소룡동, OCI 군산공장 후원해 김장김치 나눔행사

군산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5일 OCI(주) 군산공장의 후원을 받아 소룡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OCI(주) 군산공장 임직원과 소룡동의 자생단체 100여 명이 참여해 이웃들을 위해 총 2,000포기의 김장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이후 김치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과 경로당,장애인시설 등에 전달되었다. 표상희 OCI(주) 군산 공장장은 “올해도 소룡동의 어려운 이웃께 김치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장옥남 OCI(주) 군산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은 “올 겨울에도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김장김치가 소룡동의 소외된 이웃들을 배울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조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극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극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